

韓, 아이폰 1차 출시국?... 삼성, '프리미엄 반값폰'으로 맞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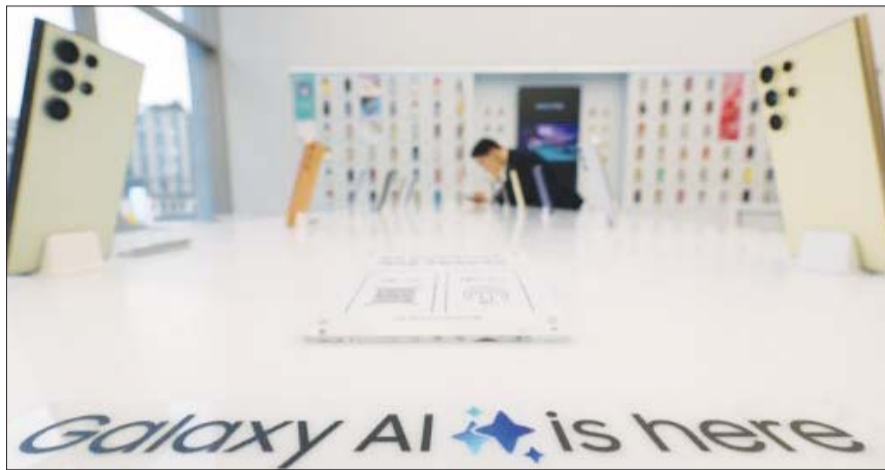
애플, 中 시장 부진에 韓 공략 강화
내달 10일 공개... 20일 판매 시작

삼성 '갤S24 FE' 80만원대 출시
프리미엄 보급형으로 점유율 방어
갤S24 시리즈 핵심 기능만 탑재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아이폰 신작 '1차 출시국'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 가운데 삼성전자도 방어전에 나섰다. 삼성은 단종을 고심했던 80만원대 갤럭시S24 FE를 출시키로 하는 등 고급형 반값 스마트폰을 내놓으며 국내 점유율을 지키는 데 고삐를 죄고 있다.

26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애플이 9월 10일 아이폰16과 애플워치, 에어팟 시리즈 신제품을 공개할 계획이다. 열흘 뒤인 20일부터 공식 판매가 시작된다.

◆한국 14년만 아이폰 1차 출시국 전망
특히 한국이 아이폰 1차 출시국에 포



삼성전자의 첫 AI 폰 '갤럭시 S24' 시리즈가 공개된 지난 18일 서울 강남구 '삼성 강남'에 갤럭시 S24가 전시돼 있다. /뉴시스

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 예상대로 한국이 1차 출시국에 이름을 올릴 경우 아이폰 출시 이후 첫 사례가 된다.

아이폰 제조사인 애플은 최근 14년간 한국을 1차 출시국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국내 소비자들은 해외 직

구를 이용해 1차 출시국에서 선보인 아이폰을 사들이거나 한 달 이상 기다렸다 구매해야만 했다.

실제로 애플은 아이폰15 시리즈 출시 당시 한국을 3차 출시국으로 분류했다. 한국에선 1차 출시국보다 한 달 가까이 늦게 출시한 것. 업계에선 전자제

품을 판매해야 할 때 얻어야 하는 전과 인증 때문에 출시 일정이 밀리는 것으로 추측해 왔다.

하지만 올해 아이폰16을 두고는 지난 5월부터 한국의 1차 출시국 포함설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최근 중국에서 아이폰 판매율이 저조한 데다 지난 아이폰15 시리즈의 경우 아이폰 사상 한국 최대 판매량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 한국이 아이폰 1차 출시국에 포함된다면, 아이폰의 국내 점유율도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분기 스마트폰 시장은 삼성전자가 주축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지난 1분기 출시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의 수요가 줄어드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삼성 프리미엄 보급형폰 확대 '방어전 총력'

이 때문에 삼성전자는 시장 점유율을 지키기 위한 방어전에 본격 나설 것으로 보인다. 프리미엄 보급형 제품군을 확대해 점유율을 지키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업계에 따르면 삼성은 단종을 고심했던 갤럭시S24 FE를 오는 10월에 출시할 예정이다. 삼성의 갤럭시S FE는 최신 프리미엄 모델인 '갤럭시S24' 시리즈의 핵심 기능만 탑재한 가성비폰이다. 저렴한 가격에 '갤럭시S24' 주요 성능을 경험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알짜폰으로도 불린다.

실제 삼성은 그동안 중저가 폰을 통해 2분기 점유율을 방어해왔다. 시장조

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가 최근 발표한 2024년 2분기 국내 스마트폰 점유율 자료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76% 점유율을 차지했다. 애플이 22%를 차지하며 뒤를 이었다. 다만, 3년째 삼성전자는 2분기 아이폰의 20%대 점유율을 무너뜨리지 못하고 방어하고 있는 실정이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2분기 삼성 전자 점유율에 대해 "삼성전자는 갤럭시 버디 3, A15 등 중저가폰을 출시하며 점유율을 소폭 확대했다"고 분석했다. 이는 중저가폰 출시 덕분에 2분기 점유율을 방어했다는 분석이다. 출고가 39만9000원의 갤럭시 버디 3의 경우, 거의 0원에 구입할 수 있다.

이에 삼성은 단종을 고심해왔던 갤럭시S24 FE를 아이폰 16에 대응하기 위해서 출시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아이폰 16의 비싼 가격이란 단점으로 꼽히는 만큼 프리미엄 보급형 폰인 갤럭시S24 FE가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갤럭시S24 FE는 플래그십 모델의 부품을 활용하면서 가격을 낮췄다.

이외에도 삼성은 보급형 제품군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전용 보급형 스마트폰 '갤럭시 퀘텀5'의 사전예약을 오는 27일까지 진행한다. 해당 제품은 삼성전자 보급형 스마트폰 '갤럭시 A55'에 양자보안을 적용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금융의 모든 순간

사람들은 돈 버는 일에
투자라는 말을 붙이지만

우리는 좋아하는 일에 열심일 때도
투자라는 말을 붙이기로 했습니다.

깊이 좋아하는 것만큼
당신을 성장시키는 건 없으니까요.

당신의 삶도
당신의 자산도 성장하는 투자

N2, 와 함께 시작해 보세요

NH농협금융

N2,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당신의 투자 문화가 되다

R 소비자 가장 추천하는 브랜드
2024년 소비자 가장 추천하는 브랜드
증권부문 3년 연속 1위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선정

NH투자증권

mRNA 백신부터 양자기술까지 6개 R&D 사업, 예타면제 확정

제7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개최
4개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
2개 과학기술 인재육성 예타 면제

국가적으로 개발이 시급한 과학기술 분야 6개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2024년 제7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를 개최하고 4개의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과 2개 우수 과학기술 인재육성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5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타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하고 '대형 R&D 투자·관리 시스템 혁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우선 mRNA 기술을 활용한 백신 신속 개발 플랫폼을 개발해 미래 팬데믹 위기 시 100/200일 내 초고속 백신 개발 체계를 갖추는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 사업이 미래 감염병 재발 발생 시 안정적인 백신 공급의 중요성과 사업의 도전·혁신성을 인정받아 예타가 면제됐다.

선도국 수준의 양자 기술 도약과 산업화 역량을 조기 확보하기 위한 '양자 과학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는 양자과학 기술 분야 기술력 제고, 국가안보 강화,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국가차원 지

원 필요성과 시급성을 인정받아 예타가 면제됐다. 이 사업은 국가전략기술 10대 플래그십 프로젝트 중 하나로 양자컴퓨팅, 양자통신 등 전략과제를 수행, 8년 내 국제적 선도 수준의 성과를 창출하는 게 목표다.

향후 10년 전후로 신시장을 형성할 10대 판기술 과제를 공도·선정해 기술개발, 상용화 및 산업생태계 조성을 추진하는 '미래 판기술 프로젝트'는 기술변화에 시급하게 대응하기 위한 도전·혁신적 기술개발 추진의 타당성을 인정받아 예타 면제사업으로 선정됐다.

지역의 경제 활력 제고와 지역별 주력 산업 성장을 위해 비수도권 14개 시도 중소기업을 지원해 지역 선도기업으로 육성하는 '지역혁신 서도기업 육성사업'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추진 타당성이 인정돼 예타가 면제됐다.

이공계 대학원생의 경제적 안정망을 구축하려는 '이공계 대학원 연구생활장려금' 사업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과 국내 학령인구 감소 등에 대응해 국가정책적으로 과학기술 연구인력확보가 시급해 예타가 면제됐고, 차세대 AI 고급인재 양성을 위한 '광주과학기술원 부설 AI 과학영재학교 신설'은 교육시설에 해당하고, 학교 설립 여건이 갖춰진 점을 인정받아 예타가 면제됐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